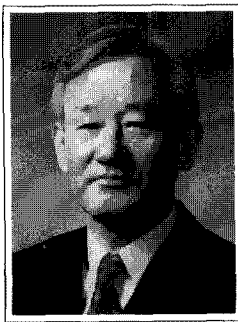


홀로코스트를 보는 눈

- 실증주의와 구성주의 -



노윤래

전 한전원자력연료(주) 사장

서울대 공대 전기공학과 졸업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관
한국전력공사 근무(1966~1994,
최종직위: 영광원자력본부장)
한전원자력연료(주) 근무
(1994~2000, 최종 직위 : 사장)
서울대, 한양대 강사 역임

역사 서술의 방식

1991년 토시(John Tosh)는 카(Edward H. Carr)의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를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한 것을 두고 역사의 본질에 대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성찰이라고 평가했다.

카는 대화의 담론을 통해 역사의 실증주의적 서술과 구성주의적 서술 사이에서 균형적이면서 동시에 종합적인 견해를 제시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역사 서술(Historiography)은 두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사료를 모으고 이에 기초해 진리를 밝히며 사실(史實)을 설명하는 실증주의적 서술 방식과 실증주의적 방식이 사건의 차원을 떠나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이야기, 플롯, 주장, 해석, 등 구조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예컨대 수사학적, 이데올로기적, 정치적)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는 구성주의적 서술 방식이 있다.

나치 정권의 유대인 대학살(홀로코스트)을 두고 최근에 재연된 논쟁을 보면서 역사 서술의 단면을 살펴본다.

「그 좋았던 시절」의 공포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뉘른베르크 나치 전범 재판에서 나치 정권의 비



아우슈비츠(Auschwitz) 수용소 (폴란드 소재)

인도적 전쟁 범죄의 책임을 히틀러와 그 당에게 전가함으로써 독일인들을 죄의식에서 구해주는 효과가 있었다.

그 후 동·서독간의 냉전 체제, '라인 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서독의 눈부신 경제 성장 등으로 홀로코스트에 대한 반성과 평가는 수면 밑으로 잠수되었으나, 독일 역사학자인 놀테(Ernst Nolte)가 1986년에 소비에트 연방의 수용소 군도(Gulag Archipelago)를 홀로코스트에 비유한 논문이 발표되면서 나치즘과 홀로코스트에 대한 논쟁이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화산처럼 폭발되었다.

1996년에 발표된 골드하겐(Daniel J. Goldhagen)의 저술인 「히틀러의 자발적 처형자들 : 보통 독일인과 홀로코스트(Hitler's Willing Executioners: Ordinary Germans and the Holocaust)」는 1988년에 출간된 자료집 「그 좋았던 시절」을 인용하고 있다. 「그 좋았던 시절」이란 폴란드의 트레블링카 유대인 수용소 소장이던 프란츠(Kurt Franz)가 그의 사진첩 제목에 부친 것으로, 사진 중에는 '배리'라는 개가 나오는데 이 개는 프란츠의 유대인과 개의 위치를 전도시킨 명령, 즉 "사람아, 저 개를 물어뜯어라!"에 따라 포로들을 덮치곤 했다. "배리는 슬한 포로들을 갈기갈기 찢곤 했으며 그들의 생식기를 물어뜯어내기도 했다"라는 설명문이 쓰여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나치가 일으킨 공포와 잔인성에 전율을 느끼게 되며 유대인 살해를 둘러싼 웃음소리와 환호성 축제(?)는 참으로 섬뜩하다.

어느 독일 장교의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나는 계속되는 환호성과 웃음소리에 처음에는 승리의 축제이거나 운동 경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목격한 것은 내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본 것 중에서 가장 끔찍한 광경이었다."

「그 좋았던 시절」이 갖는 함축적 의미는 기록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이는 골드하겐의 책에서 극단으로 표현되고 있다.

홀로코스트의 배경

홀로코스트가 일어난 배경에 대해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골드하겐이 주장하는 것은 사회 심리적 압력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독일인들이 반유대주의 민족전통에 철저히 물들어 국가가 유대인들에 대해 주도한 사악하고 잔인한 학살에 거의 신비적일 정도로 참여할 수 있었다면서 독일 역사의 '독특한 길(Special Path)'이란 역사관을 재조명하고 있다.

한편 히틀러의 권위에 대한 복종이 원인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홀로코스트를 입안하고 추진한 총책임자인 힘러(Heinrich Himmler)가 폴란드의 포전에서 나치 친위대의 고급 장교단에 행한 연설에서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금기(한 중

죽을 지구상에서 말끔히 쓸어 없애는 것)를 아무런 도덕적 손상을 입지 않고 성취할 수 있었다고 선언한 것이 이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익을 추구하는 관료층이 홀로코스트의 앞잡이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현장에서 직접 유대인 학살을 주도한 악명 높았던 아이히만(Eichmann)은 “오백만이 넘는 유대인이 깨끗이 박멸되었다는 것을 알면 기쁘게 무덤으로 가겠다. 이런 기쁨은 죽음의 경이적 차원과 끝없이 늘어선 희생자의 시체가 만들어준다.”라는 광기의 독설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냉소적 이성’은 나치의 인종 말살을 이해

하는 데 필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 ‘반복 강박(Repetition Com

pulsion)’이란 개념이 있다. 죽음의 충동과 비참한 광경의 끝없는 강박적 행동과의 연결을 의미한다. 살인의 반복에서 오는 의기양양함이란 더 많은 사람을 살해하는 데서 오는 어떤 환희에 사로잡힌 존재로 다가옴을 뜻한다.

또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남에게 비난을 전가하는 특성이 홀로코스트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있다.

유대인은 더럽고 이기적이며 우생학적으로 열등한 유전자를 가진 쥐나 해충이므로 반드시 박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직 “유대인은 죽어야 한다!”는 독일인들의 생각이 홀로코스트에 대한 논쟁에서 나타난 일치된 결론이었으며 다만 차이점은 홀로코스트의 주도 세력이 히틀러가 세운 인종 말살 정책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추진했던 나치 고위층이라는 의도론자(Intentionalists)와 홀로코스트의 주도 세력이 중심이 없고 비인간적인 관료들이었다는 기능론자(Functionalsts)의 논쟁이 상존하고 있을 뿐이다.

구성주의와 실증주의의 접목

끝으로, 홀로코스트, 굴락, 9.11 등 정신적 외상(Trauma)을 겪은 사람은 PTSD(트라우마 후기 스트레스성 질환)의 반사적 행동이 피해자는 물론 극한 사건을 다루는 역사학자들의 저술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있어 역사 탐구에 있어서 성찰과 윤리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원자력을 바라보는 눈도 예외는 아니다. 저렴하고 환경 친화적이라는 실증주의적이며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 반면에 중대 사고시의 위험성이 환경의 재앙을 초래한다는 구성주의적 시각이 있기도 하다.

문제는 이를 균형 있게 조화하며 종합적인 안전 관리를 함으로써 원자력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이다. ☸



독일 역사학자인 놀테(Ernst Nolte)가 1986년에 소비에트 연방의 수용소 군도(Gulag Archipelago)를 홀로코스트에 비유한 논문이 발표되면서 나치즘과 홀로코스트에 대한 논쟁이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화산처럼 폭발되었다.